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 1:1–18)

1/2/2022 주일 말씀

 요즘 재벌들의 자녀가 많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재벌의 자녀에게는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번의 그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상상할 수 없는 재벌도 그리고 그의 자녀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깊이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슬프고 아픈 일을 겪어야 하고, 그 엄청난 권세와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비관하여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일을 감행하였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재벌 중의 재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의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몇일 전 참으로 오랜만에 어떤 친구 목사 부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야기 중에 밑도 끝도 없이 요즘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행복과 감사가 온 삶에 충만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친구 목사에게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 만한 목회의 어려움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의 입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말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심정과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그 친구와 삶에 가득한 행복과 감사의 원인을 말 안해도 압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권세는 행복입니다. 감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도, 고난과 역경이 있고 절망스러운 환경에 살아도 전혀 그것에 구애 받지 않고 천국을 살게 되는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재벌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는 품질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격이 다릅니다.

 재벌의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 때문에 화를 내고 스스로 불행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놈은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고, 어느 놈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다고, 그래서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참 억울하다고, 그래서 세상 살 맛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다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런 세상 한번 확 뒤엎어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지고 보면 재벌도 별거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놀랍게도 내 마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순전히 내 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도 공평합니다. 그것은 재벌이라고 기회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기회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별것 아닌 세상에는 차별이 좀 있는 듯 하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상에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은 참 공평합니다. 세상은 참 살만 합니다. 세상은 참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벌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욕심을 두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욕심을 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권세와 물질에 연연하여 평생을 불행하게 살지 말고, 제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언제나 어디서나 살게 하는 믿음에 욕심을 두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이 부적을 사서 붙이고 다니듯이 주일 날 겨우 교회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액땜하듯 교회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믿음에 욕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면 믿음 때문에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천국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미신을 믿는 사람이 부적을 붙이고 다니듯 교회 생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애국운동 하면서 제 마음 속에는 큰 비젼이 생겼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그냥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과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다른가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수준이 다르고 격이 다르고 품질이 다릅니다. 전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권세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재벌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당에 갑니다. 이런 사람은 천당 가기 위하여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세상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천국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시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놈은 팔자 좋아 재벌 자녀로 태어나고, 어느 놈은 팔자가 사나와 이 모양 이 꼴로 살기 때문입니까? 세상이 불공평해서입니까? 가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러나 되어보았자 사실은 별것도 없는 세상에 목을 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가 누리는 권세, 천국의 삶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 쓸데 없는 것 기다리느라 목 빼지 말고, 우리에게 늘 천국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천국을 사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즈음 세상을 보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꼭 다른 생각, 악한 생각,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꾸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 가지고도 죽을때까지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욕심 부리다가 결국 되돌아 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죽는 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배움에는 새로운 것이 자꾸 나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참 흥미진진하게 배우고 복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력에 욕심이 있고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배우려 하지 않으며 그 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제가 보고 연구 해 본 결과 그들은 흑암, 사탄의 세력에 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사탄의 세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 해 주어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나를 이상하게 봅니다. 이만큼 사탄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 장악했습니다. 이 사탄의 거대한 세력과 싸우는 집단이 지금 미국의 군부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 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